

진안군, 연이은 폭염 대응 총력

무더위 쉼터 지정·점검·파라솔 그늘막 설치·도로 살수차 등 운영

진안군은 짧은 장마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폭염에 대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먼저 무더위 쉼터 231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경로당 119개소, 마을회관 88개소, 보건소 및 복지센터 16개소, 급용기관 및 기타시설 17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냉방기 점검과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또한 관내 곳곳에 고정형 파라솔 그늘막 10개소 등을 설치해 폭염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더위에

취약한 노년층에 지급될 수 있도록 양산을 배부했다.

특히 폭염 특보가 끝날 때까지 도로 살수차를 운영한다.

이는 진안을 내 주요 시가지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도심의 열섬현상 해결을 통한 체감온도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군은 축산농가에 병방시설 및 안개분무기, 환풍기 설치 등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폭염 특보 발효 시 축산농가에 문자 메시지(SMS)를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연이은 폭염으로 군민들의 안전이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낮 시간대 이동 금지 및 무더위 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며,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내달 31일까지 447명 아동 대상 하루 1인 1식 제공

무주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저소득층 결식아동 예방과 아동급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서다.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여름방학 급식 지원비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는 급식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무주군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447명을 아동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인 1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45명은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일반가정 아동 대상 302명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직접 부식을 배달 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여름방학 급식 지원을 앞두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부서를 통해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아동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급식 기관을 대상으로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박하영 팀장은 "지역사회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촘촘한 모니터링을 통해 급식 사각지대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결식아동 없는 무주군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 보건의로원과 연계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관련 비상연락망을 꾸리고 위생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나서

김창열 부군수, 중앙부처 방문해 예산확보 당부성 설명

진안군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발품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6일 전춘성 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선데 이어 김창열 부군수가 27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3건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김창열 부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을 잇달아 방문해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전통자원 복원사업 등 3건에 대해 건의하고 2022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진안군이 인삼과 약용작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임을 알리며 센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곤충산업과 관련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진안이 곤충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용담댐 주변의 침체된 내수면 경제의 활력 제고와 용담호 어족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전통자원 복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창열 부군수는 "국가예산의 최대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력의 집중과 함께 중앙부처와의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며 "현안사업들이 국가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맥류 보급증 종자 신청

무주군이 2021년산 맥류 보급증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3품종 2,800kg로 큰알보리1호 400kg, 흰쌀보리 300kg, 호밀(곡우) 2,100kg이다.

보급증 신청·접수 시 보리는 소독 여부를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카복신·티라분제를 통한 소독으로 겉껍 부기병과 줄무늬병 방제약제를 사용했으며,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등록약제가 없는 호밀 종자는 전량 미소독으로 공급된다.

소독종자 신청은 8월 12일까지, 미소독 종자 신청은 8월 20일까지 받으며, 소독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한다. 종자의 배송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28일 카드형 지역화폐인 '장수사랑카드'를 출시했다.

'장수사랑카드' 발급 시작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위해 금액 충전 사용 체크카드 출시

장수군은 28일 카드형 지역화폐인 '장수사랑카드'를 출시했다.

장수사랑카드는 기존 종이형 상품권이 훼손 및 분실 위험성이 높고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과 군민의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카드형 지역화폐다.

장수사랑카드는 이용자가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체크카드, 스마트폰 앱 'chak'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발급하고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여 군지부·출장소를 비롯한 관내 농협, 무진장축협 등 11개소(장수농협·산서농협·번암농협·북부농협·계남농협·계북농협·전진농협·장계농협·무진장축협·장수지점·무진장축협·장계지점) 지점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 후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으며 충전 금액은 종이·카드 2가지를 합산해 월 50만원 한도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농협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한 카드 혜택을 제공해 전통시장 등록 가맹점 이용 시 2%, 기타 가맹점에서 1만 원 이상 이용 시 0.2% 포인트도 별도로 지급되며, 연말정산 때에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수사랑카드는 관내 500여 곳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앱(지역상품권 chak)의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거나 충전금액 초과 시 연결 체크카드 계좌에서 금액이 자동 결제 된다.

장영수 군수는 "군민의 상품권 사용 선택권 보장과 부정 유통 방지 및 카드 상품권 이용의 편리함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했다"며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군민과 소상공인들이 상품권을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라며, 장수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

무주군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말까지 조사농지 확정 등 자체 시행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투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소유 농지를 조사(불법 임대차)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조건(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 이상), 농업인 등 출자한도(총 출자금 80억 원 이상 시 농업인 등 10% 이상, 80억 초과 시 농업인 등 출자액 8억 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 5인 이상 조합원이 농업인) 적합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막·성토 관련한 실태 조사와 태양광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경영여부 확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50%지원

무주군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한다. 이는 키워드광고와 배너광고, 소셜 마케팅, 오픈 마켓, 중개플랫폼(배달비용 제외)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2020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이 사업체 홍보를 위해 2021년도에 사용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 50%(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단, 유희 및 향락 업종,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및 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8.6.)은 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푸드플랜 수립 예비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28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농촌경제국장과 관련부서 과장 및 팀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군 푸드플랜 예비계획 및 먹거리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진안형 푸드플랜 수립은 전춘성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4월 착수한 푸드플랜 예비계획 수립 및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8월 중 마무리 짓고, 9월에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국비 공모사업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그간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하고자 행정협의회 구성, 의견감담회, 먹거리 관련자 회의 및 인터뷰, 마을리더 설명회와 소비자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푸드플랜 공감확산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역 먹거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회에서는 진안군 먹거리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비롯해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먹거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전략과 구체적 실천 방안 등 현재까지의 용역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향후 추진과제와 로드맵(추진체계)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용역은 농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의 추진기반과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